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약수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데 대한 문제,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늘어나는 생산량에 맞게 포장용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는 약수를 다루는것만큼 위생문화적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늘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이름난 강서약수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서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여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스빠냐인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베네수엘라 루바마로혁명운동 전국지도부,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몽골인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캄보쟈의 크메르인민당 위원장, 캄보쟈군씬뻬크당 위원장, 끼르기즈스딴아알라당 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인민족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로씨아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아인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몰도바공화국사회주의자당 위원장, 발카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과 국제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키네민주당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를 위한 련합 위원장, 민주룽고로동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질트인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공조정자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란이슬람쿄련합당 부총비서,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가나인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쿠웨이트, 이란, 인디아, 일본, 도이췰란드, 몰도바, 벨라루씨, 스웨리예, 체스꼬, 핀란드, 폴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나이제리아, 베닌, 적도기네, 앙골라,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교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긍지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위용떨치고 주체조선이 동방의 핵강국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하며 자력자강으로 눈부시게 비약하는 만리마시대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보천보의 횃불과 더불어 백승의 력사 영원하리
지난 60여년동안 연 45만 5 580여개 단체에서 2 129만 1 000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보천보혁명전적지 참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앞두고 수많은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이 유서깊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끊임없이 찾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의의와 생활력,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업적을 누구나 잘 알수 있도록 당시의 거리모습을 실물그대로 보존하고있는 보천보혁명전적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양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전적지를 찾았는데 그 수가 연 45만 5 580여개 단체, 2 129만 1 000여명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해마다 평균 7 340여개 단체에서 34만 3 400여명의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이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은것으로 된다.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보천인민들은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심산속에서 100년 자란 잣나무를 정히 다듬어 보천보전투지휘처자리에 표식비를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조선인민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글발과 함께 1937년 6월 4일에 김일성장군께서 여기에서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시였다는 글을 새겼다.

보천군 주민들과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정의 마음에 의하여 그후 주체44(1955)년에 보천보혁명전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지고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 보천보분관(당시)이 개관되여 전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하지만 그때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이 사업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5(1956)년 6월 백두산지구에로의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보천보에 오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실데 대하여서와 우리 당력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신 때로부터 보천보를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통한 교양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마다에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았던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은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당시의 옛 격전장과 보천보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였다.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는 올해만 해도 전국각지의 수십만명에 달하는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이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았다.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은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은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하신 백두산청년장군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고있다.

그들은 백두산청년장군께서 멸적의 신호총성을 울리신 보천보전투지휘처와 정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을 비롯한 전투장소들과 여러 지점들에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탁월한 령군술에 대하여 깊이 새겨가고있다.

구시불통혁명전적지를 찾은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조국에로 진군하시며 압록강을 건느신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조국땅에 첫발을 내짚던 선렬들의 흥분된 심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안아보고있다.

그들은 곤장덕에 올라 사령부자리와 경위중대자리, 조선인민혁명군 제7련대와 제8련대가 배치되였던 자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창조되였는가를 깨우쳐 새기고있다.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다종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탄생하여 주체의 군사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는 때에 보천보에 오니 백두산청년장군께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을것이라는 멸적의 의지를 담아 올리신 백승의 총성이 지금도 울려오는것만 같다고 격정을 터놓고있다.

그러면서 보천보의 총성이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을 인도하는 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알리는 무적의 주체탄, 멸적의 로케트축음으로 울려퍼지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고있다.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찾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아시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통쾌하게 후려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세계적인 명장중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유서깊은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하여마냥 끊임없이 흐르는 답사자들과 참관자들의 대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송대로 기어이 완성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준 혁